

기후성의 마지막 성주는 1592년부터 1600년까지 성을 통치했으며 어릴 적에는 산보시(三法師)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오다 히데노부였다. 히데노부의 아버지 노부타다(1557~1582)와 할아버지 노부나가(1534~1582)가 혼노지 절과 니조성에서 아케치 미쓰히데(1528~1582)의 배신으로 사망했을 때, 히데노부의 나이는 고작 2살이었다. 노부나가와 그의 장남 노부타다가 죽은 뒤, 차남 노부카쓰(1558~1630)와 삼남 노부타카(1558~1583) 사이에서 후계자 다툼이 벌어졌다. 누가 오다 가문의 정당한 후계자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기요스성(아이치현)에서 열린 회의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(1537~1598)는 아직 아이에 불과했던 히데노부(산보시)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. 결국 히데노부가 오다 가문의 후계자가 되었으나, 그 정치적 권력은 히데요시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다.

히데노부가 기후성의 성주였던 1600년 당시에 기후성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끄는 동군이 이시다 미쓰나리가 이끄는 서군을 쓰러뜨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점으로 여겨졌다. 이 때문에 서군에 속해 있던 기후성은 같은 해 세키가하라(기후현) 전투가 발발하기 직전에 동군 측의 후쿠시마 마사노리(1561~1624)와 이케다 데루마사(1565~1613)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었다. 피로 얼룩진 성의 마루청은 성 안에서 전사한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후에 기후시 시내에 있는 소후쿠지 절의 천장널로 사용되었다고 한다. 전투 후, 성에서 쫓겨난 히데노부는 세상을 등지고 출가했지만, 그 후 불과 5년만에 세상을 떠났다.